



영국 글라스고 로열 콘서트홀과 첫 스코틀랜드 출신 총리 도네트 드위 동상.



영국 에딘버러의 어셔홀. 주로 클래식 공연이 개최된다. 유명한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7> 유럽편 '도시와 문화시설' ① <영국과 네덜란드>

## 중세 건축물에 문화 입히니 도시가 '복적'

매년 늦여름, 3주에 걸쳐 개최되는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클래식 음악, 연극, 오페라와 댄스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그 무대가 바로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6곳의 대규모 극장과 콘서트 홀, 그리고 소규모 공연시설이다. 1947년 인류애의 번영을 위한 화합의 장을 목표로 시작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들과 단체들은 먼저 페스티벌 총괄 매니저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만 한다.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자선단체인 페스티벌 주최 측은 오로지 티켓판매에 대한 수입을 얻게 되고 초청되는 예술가들의 경비와 페스티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정부의 공공분야 보조금과 함께 기업모금과 회사들의 협찬으로 충당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사용되는 주된 극장들은 어셔 홀(Usher Hall, 수용인원 2300명), 페스티벌 극장(Festival Theatre, 1800명), 에딘버러 플레이하우스(Edinburgh Playhouse, 2900명), 킹즈 극장(the King's Theatre, 1300명), 로열 리시움 극장(Royal Lyceum Theatre, 650명), 퀸즈 홀(Queen's Hall, 920명), 그리고 허브 극장(the Hub, 420명) 등이 다.

그 중에서도 주로 클래식 공연이 열리는 어셔 홀과 대중적인 공연이 개최되는 플레이하우스는 에딘버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어셔 홀은 중세 건축물에

현대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과거와 현재의 조합,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플레이하우스는 근대 건축물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플레이하우스에서는 유명한 TV프로그램인 'Britain's Got Talent 2011'은 물론 지킬 앤 하이드, 에비타 등 유명 공연들을 10~30유로 정도의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어셔 홀은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스코틀랜드 내셔널 오케스트라 등 오케스트라와 장영주 등 세계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의 꿈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들 문화시설은 모두 도심에 위치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도시를 복직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 한적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도시가 활기를 띠고, 그 시설 역시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서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에딘버러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문학 부문)에 가입돼 있으며, 도심 곳곳에 렉 박물관, 리딩 룸(책 읽는 곳),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등 문학가들의 동상 등이 자리하고 있다.

에딘버러에서 가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글라스고 역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음악 부문)에 가입돼 있다.

### 도심 복판 오래된 건물 공연시설로 리모델링 클래식 음악·연극·오페라 등 문화유산 공유 박물관·쇼핑센터 등과 연계돼 관광지 형성

구도심을 도는 도로 내부에 대성당과 시민공전, 글라스고 대학, 켈빈 그로브(Kelvin Grove) 박물관과 아트 갤러리, 쇼핑센터, 컨벤션 및 컨퍼런스 센터 등이 연계되며 도심 관광지를 형성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곧 관광, 즉 외지인을 불러들여 소비하는 산업을 파생시킨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글라스고의 중심거리인 뷰캐넌 거리에 자리한 글라스고 로열 콘서트홀과 음악 및 드라마 로열 스코틀랜드 아카데미 등이 유명하다.

네덜란드의 덴 하그(헤이그)의 시청은 세계 3대 건축가 중 1명인, 백색의 건축가로 불리는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으로 그 옆에 광장과 문예회관이 자리하고 있다. 시청 주변의 문예회관으로 인해 언제나 사

라들로 붐비고 식당, 카페, 상점, 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입주하고 시청 홀은 전시 공간 등으로 저렴하게 대여되기도 한다.

이 도시에는 또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판화가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한 모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 박물관도 있다. 오전 11시 문을 여는 이 박물관 앞에는 1시간 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 에셔의 삶과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원래 왕족이 거처하는 궁전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에셔의 기하학적 판화 작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과 놀이기구, LED 등을 이용한 첨단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초등학교생들도 에셔의 작품



영국 에딘버러 플레이하우스 내부 안내창구.

을 둘러보며 부모 또는 교사와 대화하고 이를 꼼꼼히 노트에 적는 등 '배움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아침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일곡지구, 롯데칠성, 코카콜라, 현대제과,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銀江 한정식

## 옛날방식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름철 고객님의 맛과 건강을 위해 銀江이 혼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엄나무 삼계탕

옛날방식 그대로 모든 음식을 어머니의 고집대로 우직하게 재식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단계 높은 한정식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닭장 떡국 ● 굴국밥

銀江 한정식  
동구 장동 51-4 (전남여고후문-북계도로)  
예약전화. 062. 227. 5986 · 4986